

증권 다이제스트



KB증권

연 5% ELS 등 8종 공모

KB증권은 오는 9일까지 CSI HK3지수와 KOSPI200지수, 유로스톡스(Eurostoxx)50을 기초자산으로 활용해 최고 연 5.0%(세전)의 수익을 제공하는 KBable ELS 713호(3년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를 공모한다. 이를 포함한 원금 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 6종과 파생결합증권(DLS) 1종, 원금지급형 기타 파생결합사채(DLB) 1종 등 8종의 상품을 공모한다.

KBable ELS 711호(3인덱스 슈퍼리자드 울트라 스텝다우형)는 S&P500지수와 홍콩항셱중국기업지수(HSCEI), 유로스톡스50(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노 낙인(No Knock-In Barrier)구조로 3년 만기에 4개월 단위로 조기상환 기회와 최고 연 4.5%(세전)의 수익을 제공한다. /김문호 기자



하나금융투자

14일 2019 리서치 전망포럼

하나금융투자는 오는 14일 하나금융투자 본사(여의도역 2번 출구)에서 '2019년 리서치 전망 포럼'을 개최한다.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하나금융투자리서치센터가 야심차게 준비한 이번 포럼은 센터 내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총출동해 경제와 금융 분야를 망라하여 짚어본다. 포럼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2부로 진행된다.

포럼 1부와 2부의 '글로벌 자산 전략 포럼'은 500명까지 참가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2019 전망 자료집을 제공한다. /김문호 기자

대신증권

11월 WM아카데미 개최

대신증권은 6일부터 13차례에 걸쳐 서초구 잠원로 반포자이플라자 2층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 '11월 WM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11월 WM 아카데미'는 요일별로 세무, 부동산, 대체투자, 경공매 등 특정 주제를 선정해 진행된다. 금융투자의 기초부터 세무, 부동산, 경공매 등 재테크 투자전략을 다채롭게 다룬다.

12일, 19일에는 '미리 알고 준비하는 세무절세'를 주제로 HNW(High Net Worth) 고객을 위한 부동산 세제의 이해와 증여, 상속 절세방안을 소개한다. 6일, 13일, 20일, 27일은 재테크를 위한 부동산 투자 가이드와 부동산시장 전망 등을 설명한다. /김문호 기자

# '10억 가진' 그들만의 로또... 당첨뎌 차익 8억

강남 '래미안 리더스원' 청약 돌입

1순위 청약 1317가구 중 232가구 중도대출 막혀 현금 10억 있어야 면적·층수별로 12.8억~39억원

서울 강남의 재건축아파트 '래미안 리더스원'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대책으로 강남권 재건축 일반분양이 줄줄이 밀린 가운데 오랜만에 등장해서다. 분양가도 인근 시세보다 저렴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중도금대출이 막혀 최소 10억원의 현금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들(부자)만의 로또'가 될 것이라 지적이다.

삼성물산은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우성1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리더스원'의 1순위 청약을 실시했다.

이 아파트는 전체 1317가구 중 232가구를 일반 분양하며, 100% 가점제로만 뽑는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이 196가구다. 모든 평형의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해 특별공급 물량은 없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4489만원으로



지난달 31일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 갤러리에 마련된 '래미안 리더스원'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채신화 기자

책정됐다. 면적·층수별로 12억8000만~39억원 선이다. 물량이 많은 83~84㎡의 분양가는 15억7000만~17억3000만원에 형성됐다.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면 6억~8억원 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재건축 완료 후 올해 1월 입주를 시작한 인근 '래미안서초에스티지S'는 전용면적 84㎡ 20억~21억원, 전용면적 111㎡ 25억~26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래미안

리더스원이 향후 인근 시세 만큼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하면 일반 아파트 1채 수준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업계의 분석이다.

이런 이유로 래미안 리더스원에 대한 '로또 청약' 기대감이 높은 분위기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리더스원의 견본주택을 이례적으로 평일인 수요일에 개관하고 5일간 운영했는데, 누적 방문객이 5만명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중도금 대출이 막혀 '그들만의 로또'가 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아 입주 시까지 계약금 포함 분양 대금의 80%를 납부해야 한다. 분양가가 가장 낮은 59㎡A 4층(12억6000만원)의 경우 10억8000만원, 가장 높은 238㎡(39억원)는 31억2000만원의 자금이 있어야 한다.

높은 분양가에도 청약을 시도하려는 '현금 부자'의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지난달 31일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 갤러리에 마련된 견본주택에서 만난 박 모 씨(60)는 "새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청약 통장을 안 쓰고 기다리고 있었다"며 "현재 살고 있는 강남 아파트 전세를 처분하면 현금은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현금 부담 때문에 실제 청약경쟁률은 높지 않을 것이라 전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흔치 않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인 만큼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현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제 청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청약 마감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 “국산 기술 ‘항체신약 항암제’ 세계시장 공략”

IPO 간담회

파맷신

12~13일 청약거쳐 21일 코스닥상장 타니비루맵의 美 임상 2상 등 추진

항체치료제 개발 전문바이오기업 파맷신이 이날 말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파맷신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2, 13일 청약을 받은 후 오는 21일 코스닥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유진산 파맷신 대표이사는 "이번 상장으로 타니비루맵의 미국 임상 2상과 글로벌 병용투여 임상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산 기술로 개발한 항체신약 항암제로 세계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맷신은 자체 구축한 완전인간항체 의약품 개발 플랫폼을 기반으로 현재 임상개발 단계 의약품을 연구개발하고 있



6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진산 파맷신 대표가 기업설명을 하고 있다. /파맷신

다.

국산 1호 항암 항체신약 후보물질로 알려진 타니비루맵은 신생혈관 생성을 차단해 종양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신약후보물질이다. 유 대표는 2001년 LG생명과학(현 LG화학 생명과학사업

부)에서 시작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2013년 국내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완료했고, 지난해 호주에서 재발성 악성 뇌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2상을 마쳤다.

유 대표는 "타니비루맵과 유사한 작용 기전의 경쟁의약품에서는 고혈압, 위·장·질 천공, 장내출혈, 단백뇨 등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해 투약에 한계가 있었으나 타니비루맵은 임상결과 그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아 높은 안전성을 입증했다"며 "특히 호주 임상 2상에서는 기대수명이 4개월 미만으로 알려진 재발성 뇌종양 환자들 가운데 25%의 환자들에게서 수명을 최대 16개월까지 연장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타니비루맵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 임상 2상 후 상용화가 가능하다. 또 글로벌 제약사 머크(MSD)와 타니비루맵과 키트루다(Keyt

ruda)의 병용요법 공동임상연구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타니비루맵 기반의 이중·다중표적 항체 등의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타니비루맵에 표적을 추가한 이중항체 후보물질 연구도 진행 중이다.

신생혈관 억제제 내성 환자에게 과발현되는 'Tie-2'를 동시에 표적하는 'PM C-001'이다. PMC-001은 동물실험 결과 타니비루맵 및 아바스틴보다 우수한 효능을 보였다. 타니비루맵 이후 차세대 신약후보물질로 키워갈 계획이다.

지난해 매출 2억원에 영업손실 38억원을 기록한 파맷신은 기술특례제도를 활용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

주당 공모희망가는 4만3000원~5만5000원으로 총 80만주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마련된 최대 440억원의 자금은 타니비루맵의 미국 임상 2상과 글로벌 병용투여 임상에 사용할 계획이다. 오는 21일 상장예정인 파맷신의 대표주관사는 KB증권이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 금호산업, 3분기 누적 영업이익 323억 기록

지난해비 23% 증가... 순익 302억

금호산업이 6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올해 3분기까지 32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하면 23% 증가한 수준이다.

3분기 누적 매출액은 9884억원, 순이익은 302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4%, 73% 늘었다.

신규착공 현장의 증가로 원가율이 대폭 개선된 효과가 반영됐다고 금호산업 측은 설명했다.

차입금은 지난해 말 대비 약 370억원을 상환해 1803억원까지 낮아졌다. 연말에는 영업실적 등 반영으로 차입금 잔액이 1700억원대로 축소될 전망이다.

신규수주는 1조6449억원을 달성했다. 수주잔고는 5조9300억원을 기록했다.

금호산업 측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물량이 많아 연말까지 신규수주가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내실 있는 신규수주와 수익성 개선을 통해 펀더멘탈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며 "연말까지 대우건설 인수 손해배상 승소 효과가 반영될 시 500여억원의 추가 이익 증가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개선된 실적을 바탕으로 주주이익 제고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기업 가치를 더욱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 미래에셋대우, 제너럴바이오와 맞손

코스닥 상장 위한 IPO대표주관계약

미래에셋대우는 6일 사회적기업 제너럴바이오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IPO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너럴바이오는 2019년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케어셀라, 씨케이 등 자사브랜드를 바탕으로 친환경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등을 통해 최근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감으로써 2019년 상반기 예비심사 청구, 2019년 연내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다.

미래에셋대우 조영기 대표는 "사회적기업으로서의 흔치 않게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이익 실현을 이뤄내고 있는 제너

럴바이오의 다음 단계가 기대된다"며 "성공적인 상장이 될 수 있도록 미래에셋대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제너럴바이오 서정훈 대표는 "제너럴바이오의 기업 철학은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환경 책임을 준수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해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며 "기업의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육성을 통해 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인간 중심의 경영 철학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